

고구려의 국가전례와 음악

송지원(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 머리말

국가전례(國家典禮)란 왕실(혹은 황실)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규모로 시행되는 각종 전례를 말한다. 고구려시대에 국가규모로 시행된 전례는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0월의 제천의례인 동맹제(東盟祭)를 비롯하여 종묘제(宗廟祭)·사직제(社稷祭)와 같은 것이 있었다.

고구려시대에는 이러한 제례(祭禮) 이외에도 성격과 기능을 각각 달리하는 여러 형태의 국가전례가 각각 다른 목적으로, 다른 날짜에, 다른 형태로 치러졌다. 그러나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는 오례(五禮)체계로 기록되는 고려시대 이후의 전례처럼¹ 일정한 전례서(典禮書)를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가전례의 전체적인 틀을 파악하기 어렵고 관련 기록 또한 영성해서 그에 대해 세밀한 연구를 개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간 고구려 국가전례에 대한 연구는 지엽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게다가 기록 내용도 우리의 문헌보다는 중국 측 문헌에 더 많이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기록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

¹ 五禮란 吉禮·凶禮·軍禮·賓禮·嘉禮의 다섯 가지 전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高麗史』의 「禮志」에서 五禮체계로 국가전례가 기록되기 시작하였다.

국가전례와 관련된 기록이 간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례의 전체 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비롯하여 그 전례가 시행될 때 수반되는 총체적 의미의 악(樂)에 관한 세부내용 또한 찾기 어렵다. 간혹 소략하게 기록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큰 맥락 없이 부분적인 내용만을 기록하거나, 그림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에 고구려시대에 행해진 국가전례와 음악에 대한 연구는 그 접근부터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고구려에 시행된 각종 국가전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고구려시대에 국가적인 규모로 행해진 각종 국가전례에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그 성격은 어떠했으며, 규모나 시행 내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양상을 정리해 보기 위한 것이다. 그와 더불어 그러한 국가전례에 수반되었던 각종 음악 연행의 실상에 대해서도 자료의 사정이 허락하는 한 파악해 보고, 또 이미 잘 알려진 벽화 가운데 그려져 있는 음악 연행의 장면이 특정 국가전례와의 관련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아울러 포착해 보기 위한 것이다.

고구려시대부터 행해지던 각종 국가전례 가운데는 그 맥이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까지, 나아가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구려시대만 연행되고 그친 의례도 있다. 이처럼 지속성, 혹은 한시성을 가진 국가전례들 가운데 그 유산이 고구려 이후 시대까지 이어진다면 고구려시대에 행해졌던 여러 국가전례가 지니는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그 전례의 양상을 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추후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본고는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로서 그치고자 한다. 다만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가 '국가전례의 형성기'라는 측면에서 주목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전례의 실상을 정리해 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고구려시대 국가전례의 실상에 대해 그 편린이나마 알 수 있는 1차 자료는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사절요(三國史節要)』·『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과 같은 제한된 우리의 문헌과 『이십오사(二十五史)』 가운데 『후한서(後漢書)』·『삼국지(三國志)』·『진서(晉書)』·『송서(宋書)』·『남제서(南齊書)』·『양서(梁書)』·『진서(陳書)』·『위서(魏書)』·『북제서(北齊書)』·『주서(周書)』·『남사(南史)』·『북사(北史)』·『수서(隋書)』·『구당서(舊唐書)』·『당서(唐書)』 등의 「동이전(東夷傳)·고구려(高句麗)」조, 「예악지(禮樂志)」 등의 중국 측 기록에서 간헐적으로

보이는 고구려 관련 기록이다. 이러한 기록에서 추출해 낼 수 있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그 수위가 제한되어 있고, 여러 관련 기록을 종합해야 비로소 실상이 파악되는 부분적 내용이고, 그 정보는 지극히 적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실적 제한을 인정하고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1차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하되 각종 관련 문헌자료를 총 동원하고, 이와 함께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음악관련 도상 가운데 국가전례의 일환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찾아 분석하여 그것이 고구려 국가전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추정된 후 그 음악 내용에 대해 관련성을 밝혀 보는 방식으로 수행할 것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조로 이어지는 각종 국가전례, 즉 오례(五禮)²가 고구려 시대에 연행된 국가전례와 어떻게 맥이 닿아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추후 논의가 더 확장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 연행의 실상에 초점을 맞추되 그 특성에 따라 국가제례(國家祭禮), 수렵의례(狩獵儀禮)와 연례(宴禮) 등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2. 국가제례(國家祭禮)

고구려시대에 연행된 국가전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사이다. 매해 10월에 일정하게 국중대회(國中大會)로 치러진 동맹제(東盟祭)를 비롯 수신제(隧神祭), 시조묘(始祖廟)를 포함한 종묘제(宗廟祭), 사직제(社稷祭), 영성제(靈星祭), 교제(郊祭)와 산천제(山川祭), 신묘(神廟)제사 등이 고구려시대에 연행된 국가제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사의 대상은 하늘[天]과 시조(始祖)를 비롯한 조상, 사직, 수신, 별, 산천 등 다양하여 고려와 조선시대에 길례(吉禮)의 체제에 편제되어 있는 제례의 대상 가운데 많은 것이 이미 고구려시대부터 제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³

² 오례(五禮)의 원형은 『주례(周禮)』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사에서는 한대(漢代)를 거쳐 진(晉)에 이르러 그 기틀이 마련되고 당(唐)의 『개원례(開元禮)』에서 오례의 틀이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

³ 그러나 특정 제사가 고려나 조선까지 전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일한 형태를 유지한

이 가운데 특히 제천의례(祭天儀禮)의 시행은 고구려와 같은 고대국가에서 천신(天神)을 숭배하는 전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같은 고대국가 가운데 신라의 경우 “천자는 천지(天地)와 천하의 명산대천에 제사지내고, 제후는 사직(社稷)과 그의 땅에 있는 명산대천에 제사지낸다”⁴는 예를 따라 제천의례를 행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⁵ 고구려 제천의례에 대한 가장 이른 기록은 『후한서(後漢書)』⁶와 『삼국지(三國志)』⁷이다.

귀신·사직·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하며, 10월에 하늘에 제사지내는 큰 모임이 있으니 그 이름을 ‘東盟’이라 한다. … 그들의 공공 모임에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 大加와 主簿는 모두 幘을 쓰는데 冠幘과 같기는 하지만 뒤로 늘어뜨리는 부분이 없다. 小加는 折風을 쓰는데 그 모양이 고깔과 같다.⁸

10월에 지내는 제천행사는 국중대회로서 ‘동맹’이라 이름한다. 그들의 공식 모임에서는 모두 비단에 수놓은 의복을 입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다.⁹

『후한서』와 『삼국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10월의 제천의례인 동맹(東盟)이다. 여기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귀족의 복식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그것이 공적인 회합, 다시 말하면 국가적인 규모로 시행하는 제사임을 알려준다. 대가(大加)는 왕족이고 주부(主簿) 또한 주요 벼슬 가운데 하나이므로¹⁰ 동맹제(東盟祭)

채 지속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⁴ 『三國史記』 권 32 「雜志·祭祀」 “天子祭天地·天下名山大川, 諸侯祭社稷◎ 名山大川之在其地者, 是故, 不敢越禮而行之者歟.”

⁵ 고구려의 天 숭배는 후에 고구려의 시조신이 혈연적으로 天에 직접 연관된다는 天孫族 관념으로 나아가 당시 신라와 백제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⁶ 『後漢書』는 後漢 14세 25-219년의 195년간의 正史를 南朝 劉宋의 范曄이 지은 것이다.

⁷ 『三國志』는 삼국시대 220-265의 66년간의 正史를 晉의 陳壽(232-297)가 私撰한 것이다.

⁸ 『後漢書』 「東夷列傳·高句麗」 “好祠鬼神·社稷·零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 其公會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幘, 如冠幘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⁹ 『三國志·魏書』 「東夷傳·高句麗」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¹⁰ 『三國志·魏書』 「東夷傳·高句麗」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維加·主簿·優台丞·使者·阜衣先人, 尊卑各有等級.”

에 참여하는 인물의 면면에서도 그것이 국가적인 규모의 제사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천(祭天)행사에서 연행된 음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그 실상을 알 수 없다. 다만 제천의례를 행하기 위해 궁을 나와 행렬하는 거가출궁(車駕出宮)의례시 왕의 의장과 그 의장에 수반되는 악대의 모습은 몇몇 벽화를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왕의 의장 혹은 귀족의 의장으로 추정되는 행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또 하나의 제천의례로 교외(郊外)에서 거행하는 교제(郊祭)가 있다. 고구려시대에 교제가 거행되었는지 여부와 그 시행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異論)이 교차하지만 『삼국사기(三國史記)』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 가운데 교제를 거행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유리명왕 19년(서기전 1) 가을 8월에 교제(郊祭)에 쓸 돼지가 달아나서, 왕은 탁리(託利)와 사비(斯卑)를 시켜 쫓게 하였다. 장옥택(長屋澤) 가운데에 이르러 발견하여 칼로 돼지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 왕은 이것을 듣고 노하여 “하늘에 제사지낼 희생을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마침내 두 사람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어 죽였다. 9월에 왕은 병에 걸렸다. 무당이 말하기를 “탁리와 사비가 빌미가 된 것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사람을 시켜 사과하니 곧 병이 나았다.¹¹

산상왕 12년(208) 겨울 11월에 교제(郊祭)에 쓸 돼지가 달아나 담당자가 쫓아 가서 주통촌(酒桶村)에 이르렀으나 머뭇거리다가 잡지 못하였는데, 20세 쯤 되는 아름답고 요염한 한 여자가 웃으면서 앞으로 가서 잡으니 그 후에야 쫓아갔던 사람이 잡을 수 있었다.¹²

위의 두 기록을 통해 볼 때 가을 8월과 11월에 교제(郊祭)를 거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二十五史』 가운데에는 고구려의 교제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

¹¹ 『三國史記』 권 13 「高句麗本紀」 1 始祖 琉璃明王 19年, 十九年 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殺之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斯卑爲” 王使謝之 卽愈.

¹² 『三國史記』 권 16 「高句麗本紀」 4 山上王 12年, 十二年 冬十一月 郊豕逸 掌者追之 至酒桶村 不能捉 有一女子 年二十許 色美而艷 笑而前執之 然後追者得之.

는다. 중국에서 교제는 천자만이 거행할 수 있는 제례로 간주하고 있는데, 동지(冬至)에는 남쪽의 교외(郊外)에서 하늘에 제사했고, 하지(夏至)에는 북쪽의 교외에 나아가 땅에 제사하였다.¹³ 따라서 『이십오사』의 기록에서 고구려의 교제시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인 듯하다.

고구려시대에 행해진 교제가 남교와 북교에서 각각 행해졌는지 알 수는 없다. 다만 중국이 ‘동지에는 남쪽의 교외에서’ ‘하지에는 북쪽의 교외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한 것과는 달리 고구려는 8월과 11월에 각각 교제를 거행하였다. 이로 보아 교제를 치르는 시기와 그 의미가 중국과는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구려의 교제(郊祭)는 확실히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제에 사용한 음악관련 내용 또한 다른 국가제례와 마찬가지로 확실히 알 수 없어 아쉬움을 남긴다.

동맹제와 같은 무렵인 10월에 지내는 또 다른 제사로서 국동대혈(國東大穴), 즉 나라 동쪽의 큰 굴에서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내는 수신제(禘神祭)¹⁴가 있다.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있는데,¹⁵ 그것을 수신(禘神)이라 부르며, 역시 10월에 그 신을 맞이하여 제사지낸다. … 10월에 온 나라에서 크게 모여 수신을 맞이하여 나라의 동쪽 위[國東上]에 모시고 가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만든 수신을 신좌(神座)에 모신다.¹⁶

동굴에서 지내는 제사의 전통은 고구려 이후 어느 시기에도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전통이다. 수신제를 지낸 동굴로 추정되는 통천굴(通天窟)이 실제 묘사된 모습을 보면, 굴 입구의 넓은 부분이 300여 평방미터에 달하여 거대한 규모의 제

¹³ 중국에서 이러한 전통은 前漢 후기에 확립되었다. 南郊와 北郊의 제사방식은 전한 말에 王莽에 의해 체계화된 이후 왕조에서 계속되었다.

¹⁴ ‘禘神’은 『三國志』 이후에는 ‘隧神’이라 기록하고 있다.

¹⁵ 이 國東大穴은 1983년 집안 문화유물보존조사대가 발견했는데, 上解放村의 공동 지구에서 발견한 通天窟로 알려져 있다. 용암동굴이고 굴의 깊이는 16m, 너비는 20m, 높이는 6m 정도 되고 굴 입구의 넓은 부분은 300여 평방미터에 달한다. 굴의 주변은 여러 산들로 에워싸여 있고 아늑한 골짜기에 기이한 봉우리들이 있는 형세이다(吉林省文物志編委會, 『集安縣文物志』 52, 1984). 고구려의 수신제는 바로 이 넓은 부분에서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¹⁶ 『後漢書』 「東夷列傳·高句麗」 “其國東有大穴，號隧神，亦以十月迎而祭之.”; 『三國志·魏書』 「東夷傳·高句麗」 “其國東有大穴，名隧穴，十月國中大會，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置木隧于神座.”

례를 행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보인다. 이러한 넓은 공간에서 의례를 행한 후에는 나무로 형상화 한 수신(隧神)을 밖으로 모시고 나와 수상(水上)에서 제사하는데, '수상'이란 강변¹⁷을 말하는 것으로 곧 압록강변이다.

여기서 '수신(隧神)'의 존재가 궁금해지는데,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하면 수혈 속의 수신이 유폐상태의 유화(柳花)이고, 동굴은 여성과 통하므로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일 가능성이 있으며, 수신제에서 수신을 압록강변으로 모시고 나오는 것이 유화의 일광에 의한 감응을 재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⁸ 본고가 수신의 성격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논의에 그치기로 한다. 다만 수신제도 왕이 친히 지내는 제사인 친제(親祭)에 해당하므로 왕이 동맹에 참여할 때 수행하는 의장대가 다른 것으로 추정된다.

사직제(社稷祭)와 종묘제(宗廟祭)도 이미 고구려에 시행되었다. 사직은 동천왕 21년(247)에 평양성에 종묘와 함께 옮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어 고국양왕 8년(391)에 사직을 다시 세우고 종묘는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천왕 21년(247) 봄 2월에 왕은 환도성이 난을 겪어서 다시 도읍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평양성(平壤城)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그곳으로] 옮겼다.¹⁹

8년(391) 봄에 사신을 신라에 보내 우호를 약속하니, 신라왕이 조카 실성(實聖)을 인질로 보내었다. 3월에 교서를 내려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게 하였다. 당당 관청에 명하여 나라의 사직[國社]을 세우고 종묘(宗廟)를 수리하게 하였다.²⁰

위의 두 인용문은 고구려에 사직과 종묘의 존재가 확실히 있었고 적어도 동천왕 이전의 어느 시기엔가 세워져 이후 옮겨지거나 수리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

¹⁷ 강경구, “隧神考,” 『고구려의 건국과 시조숭배』, 학연문화사, 2001, 223쪽.

¹⁸ 徐永大, “高句麗의 國家祭祀 — 東盟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20, 한국사연구회, 2003, 8쪽. 그밖에 수신을 동굴을 수호하는 신, 혹은 산신(山神)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¹⁹ 『三國史記』 권 17 「高句麗本紀」 5 東川王 21년. “春二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 平壤者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王之都王險.”

²⁰ 『三國史記』 권 18 「高句麗本紀」 6 故國壤王 8년. “春, 遣使新羅修好, 新羅王遣姪實聖爲質, 三月, 下教, 崇信佛法求福, 命有司, 立國社, 修宗廟.” 고국양왕 8년 기사는 廣開土大王陵碑에 의거한다면 고국양왕 9년의 기사로 수정되어야 한다.

인다.²¹

이하 종묘와 사직의 존립 여부를 알려주는 기록들은 『이십오사』 가운데도 여러 곳에 보이지만 그 내용은 『삼국사기』 이상의 정보를 주지 못한다. 다만 “귀신, 사직, 영성에 제사지내기를 좋아한다”(『後漢書』)거나 “종묘를 세우고 영성·사직에 제사한다(『三國志』, 立宗廟, 祠靈星·社稷),” “왕실 원편에 큰 집을 지어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또한 영성과 사직에도 제사지낸다.”²²는 방식으로 제사의 시행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 가운데 『삼국지』의 내용에서는 종묘와 영성,²³ 사직제의 시행을 알 수 있게 하지만 ‘종묘’에 관한 한 『삼국지』 이외의 자료에서는 모두 ‘종묘’에 제사하는 것을 ‘祭鬼神’이라 표현했다. 따라서 『삼국지』는 『이십오사』의 기록 가운데 고구려의 ‘종묘’라는 명칭을 기록해 놓은 유일한 자료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고구려에 종묘와 사직, 그리고 영성제를 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종묘, 사직 영성제는 그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존속되는 제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시행 내용이 고구려의 것 그대로가 조선시대까지 존속되었다는 방식으로 논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제례와 마찬가지로 종묘와 사직, 영성제에서 연행된 음악의 내용 또한 상세히 알 수 없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도 고구려에서 치러진 국가제례로는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어머니이자 하백(河伯)의 딸인 유화부인을 모신 신묘(神廟), 태양신인 일신(日神), 월신(月神) 등을 섬기는 국가전례가 거행되었음이 확인된다.

3. 수렵(狩獵)의례와 연례(宴禮)

조선시대에는 왕의 공식적인 수렵의례가 오례(五禮) 중의 하나인 군례(軍禮)에

²¹ 신라는 제37대 선덕왕(632-646) 때 사직단을 세워서 그 건립시기가 고구려보다 훨씬 늦었음이 확인된다. 『삼국사기』 권 32 「雜志·祭祀」.

²² 『南史』 「東夷·高句麗」, “好修宮室. 於所居之左大屋, 祭鬼神, 又祠靈星·社稷.”

²³ 조선 성종대의 오례서인 『國朝五禮序例』에 영성제의 시일은 입추 후의 진일로 규정되어 있다. 『國朝五禮序例』 권 1, 「吉禮」, 「時日」, “立秋後辰日, 祀靈星.”

속하는 '강무의(講武儀)'로 규정되어 있었다. 강무의의 의주(儀註)는 각종 오례서에 그 시행 절차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내용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수렵과 비교해 보기 위해 그 내용을 짧게 소개한다.

왕이 강무에 임하기 7일 전부터 병조(兵曹)가 여러 백성을 불러서 사냥하게 될 들판에 일정한 표식을 하고 왕이 사냥할 부근 근교에 기(旗)를 세우는 일부터 의식이 시작된다. 사냥하는 당일에 왕이 타고 있는 어가(御駕)가 나와 북을 울리며 사냥터로 들어가면 왕이 어가에서 내려 다시 말을 타고 사냥터로 나아간다. 이때 짐승을 몰기 위한 기병(騎兵), 유사(有司) 등이 정해 놓은 횃수에 따라 짐승몰이를 하면 왕이 이어 화살을 쏘는 방식으로 의례를 진행시켰다. 왕이 화살을 쏘 후에는 곧이어 여러 군(君)이 쏘고, 마지막에 백성들이 사냥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또 짐승을 쏘았을 때 화살이 맞은 방향에 따라 그 고기를 종묘(宗廟)에 올리거나 빈객(賓客)을 대접하거나 혹은 포주(庖廚)에 충당하거나 했다. 또 활 쏘는 법에도 예가 있어서 이미 화살에 맞은 짐승은 쏘지 않았고, 짐승의 얼굴은 쏘지 않았으며, 일정 표식 밖으로 나간 짐승은 쫓지 않았다.²⁴

조선시대의 군례 가운데 하나로서 행해졌던 '강무의'에서는 이처럼 정형화된 일정 틀을 가지고 수렵의례가 행해졌고, 이때에는 반드시 '북'이 동원되어 의례의 시작과 중간 진행과 행위의 멈춤과 개시를 알리는 악기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의 '강무의'의 경우 특정한 시행 시기가 오례서(五禮書)에 규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구려시대에 왕이 직접 참여하여 행하는 수렵의례의 시행 양상을 보면 오히려 조선시대의 것보다 체계적이고 비중 또한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고구려에서 행해진 수렵의례로서 사서(史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매해 3월 3일에 낙랑지구(樂浪之丘)에서 거행한 수렵의례이다.

고구려에서는 항상 봄 3월 3일에 낙랑(樂浪)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그 날 잡은 산돼지·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이에 온달도 기른 말을 타고 따라 갔는데, 그 달리는 품이 언제나 앞에 서고 포획하는 짐승도 많아서, 다른 사람은 그를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다.²⁵

²⁴ 이하 내용은 성종대에 편찬한 五禮書인 『國朝五禮儀』에 있는 것을 요약하여 소개한 것이다.

『삼국사기』 온달전에 3월 3일 낙랑의 언덕에서 사냥하는 의례에 관한 기록이 있다. 내용을 보면 고구려에서 행해진 수렵의례가 주요한 국가전례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매해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행해졌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은 봄 3월 3일에 왕이 친히 행하는 수렵의례를 묘사한 것이지만 이러한 의례는 가을에도 행해졌고, 왕이 친히 참석했으며²⁶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서는 큰 규모의 의례에 속했음이 확인되어 고구려의 수렵의례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례 가운데 하나로 행해졌고, 그 상징적 의미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구려 사회에서 수렵의례가 매해 왕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서는 중요한 국가전례로 치러졌다면 현전하는 수많은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적어도 몇 기 정도에서는 그 관련 그림이 남아 있을 법하다. 따라서 여러 고분벽화 가운데 고구려 국가전례와 관련한 행렬도로 추정되는 것을 찾아보고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현전하는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성대한 규모의 행렬도가 기록된 것으로는 '안악 3호분'과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등이 있다. 기존 연구성과에 의하면 이들 고분의 주인공이 고구려로 망명한 동수(冬壽),²⁷ 유주자사 진과 같은 일정 신분 이상의 귀족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고분 가운데 '안악 3호분'의 벽화 내용에 대하여는 그동안 상당한 분량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음악사학의 분야에서는 이해구, 변미혜 등의 학자에 의해 그 내용이 진척되었다. 특히 이해구의 연구에서는 무덤의 주인공이 '동수'라는 연구성과를 받아들여 전실(前室)의 벽화는 전정(殿庭)에서의 의례악(儀禮樂)을 그린 것으로 한대(漢代)의 황문고취(黃門鼓吹)에 해당하는 악대라 하였고, 회랑(回廊)의 행렬도는 담고(擔鼓)와 담중(擔鐘)이 포함된 전부고취(前部鼓吹), 이중고(二重

²⁵ 『三國史記』 권 45 「列傳」 5 「溫達」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會獵樂浪之丘，以所獲猪鹿，祭天及山川神，至其日，王出獵，臣及五部兵士皆從，於是溫達以所養之馬隨行，其馳騁常在前，所獲亦多，他無若者。”

²⁶ 『隋書』의 기록에도 왕이 친림했다는 내용이 있다. 『隋書』 권 81 「高麗傳」 “每春秋郊獵王親臨之.”

²⁷ 冬壽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으로 추정되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안악 3호분이 미천왕릉 혹은 고국원왕의 것이라는 설도 제기되어 현재 이 두 가지 설이 모두 나름의 논리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鼓)와 소(簫), 각(角), 탁형타악기(鐸形打樂器)가 포함된 후부고취(後部鼓吹)라 하였다. 또 후실동벽(後室東壁)의 무용도(舞踊圖)는 의장(儀仗)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예연(禮宴)이 아닌 곡연(曲宴; 私宴)이라 진단하면서, 서기 357년에 大角·立鼓·簫·攄鼓·金鉦·鼗·笳·鐃·玄琴·阮咸·長簫 등의 악기가 존재했음을 밝혀²⁸ 안악 3호분 벽화에서 보이는 음악관련 장면에 대해 상세하게 논증한 논문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해구의 논문에서는 벽화에서 보이는 각종 악기와 악대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논증을 하였지만 이러한 악기 혹은 악대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 동원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악대인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여 후학에게 넘겨 놓았기 때문에 안악 3호분의 벽화에 그려진 음악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 진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학계에서는 안악 3호분의 주인공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형편이지만 안악 3호분에 그려진 음악연행 내용과 몇몇 단서들은 그 주인공이 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실이 여러 장면 보인다. 특히 회랑(回廊)에 그려진 대규모 행렬도의 의장, 행렬에서 부월(斧鉞)을 갖춘 의장, 갑주(甲冑)를 갖춘 보병의 존재는 그 주인공이 왕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의장대와 악대 외에 기존 연구 성과에서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고구려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학설로는 북한학자 주영현의 연구가 있다.²⁹ 주영현은 무덤의 주인공이 쓴 관(冠)이 왕의 복식에 해당하는 백라관(白羅冠)이라는 점과 무덤의 주인공이 타고 있는 수레 앞의 깃발에 “성상번(聖上幡)”이라는 붉은 글씨가 쓰였다는 점에서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은 왕이라고 하였다.

안악 3호분의 주인공이 왕이라면 지금까지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구려왕의 의장(儀仗)제도의 실상이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안악 3호분의 의장, 그 중에서도 회랑(回廊)의 행렬도에 보이는 전부고취와 후부고취 등은 왕의 거가(車駕)가 출궁(出宮)할 때 갖추는 의장이 되고 기타 벽화의 내용은

²⁸ 이해구, “安岳 第三號墳 壁畫의 奏樂圖,” 『韓國音樂序說』, 서울대학교출판부, 1967.

²⁹ 주영현, “주요 고구려 벽화무덤의 주인공에 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日本 朝鮮畫報社, 1985. 주영현은 이 논문에서 안악 3호분 행렬의 규모도 추정했는데, 그림에 보이는 행렬, 즉 행렬의 절반만을 그린 인원이 250여 명이므로 전체 행렬도를 감안하면 행렬에 동원된 인원이 500여 명은 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각종 국가전례에서 진행되는 음악의 모습이 됨으로서 지금까지 실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불가능했던 각종 국가전례의 음악 연행 내용에 대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잠시 『국조오례서례』에 기록된 조선시대의 거가출궁의례는 길례(吉禮)의 대사(大祀)와 중사(中祀)에 수반되는 거가출궁의례를 설명하고 상세한 노부(鹵簿) 내용에 대해서는 가례(嘉禮)의 ‘노부’ 항목에서 각각의 해당하는 의장을 자세히 기록하는 방식으로 서술해 놓았다. 안악 3호분의 의장내용 가운데 각종 의장기수와 부월수(斧鉞手) 등의 모습은 조선시대 왕의 의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된다.

안악 3호분에 보이는 고구려의 의장과 조선시대 왕의 의장을 연속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면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진전되어야 하므로 본고에서는 그 이상의 세밀한 논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안악 3호분에 보이는 행렬도가 종묘제나 사직제 혹은 교제, 산천제 등을 거행하기 위해 출궁(出宮)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본 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렵의례, 혹은 수렵의례 후의 산천의례 행렬에 수반된 의장의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장에서 고찰한 수렵의례와 안악 3호분의 행렬도를 관련하여 설명한 것은 고구려사회에서 수렵의례의 중요도 때문이었다.

요컨대 본 장에서는 안악 3호분의 행렬도가 고구려시대에 대규모로 행해진 국가전례 가운데 특정 의례에 수반되는 거가출궁 장면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고, 그것을 수렵의례를 논하는 장에서 이야기한 것은 고구려 사회에서 수렵의례가 매 해 특정한 날짜에 시행되었고, 또 그 의례를 행한 후 또 하나의 중요한 의례인 산천제를 아울러 거행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제기해 본 것이다.

왕이 수렵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궁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정형화된 거가출궁(車駕出宮)의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또한 확실한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다만 고분벽화에 보이는 여러 악대의 모습 가운데 이 때 수행하는 악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고구려의 의장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없으나 『삼국사기』 「운달전」의 기록에서 3월 3일의 수렵의례를 위한 왕의 행렬에서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갔다”는 기록은 왕의 의장제도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가장 성대한 규모의 의장대 구성을

보이는 안악 3호분의 행렬도는 그것이 왕의 의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고구려시대에 국가전례 가운데 하나로 시행된 연례(宴禮)로는 왕실의 각종 연향을 비롯 주변 국가, 즉 신라나 백제의 사신이 왔을 때 베풀어지는 각종 의례와 연향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연례에서는 각종 악무(樂舞)가 수반되지만 그 악무의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기록이 없다. 다만 고구려에서 연주되고 있는 각종 악기의 종류³⁰라든지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각종 악무의 연행양상(안악 3호분, 약수리 고분, 덕흥리고분, 장천 1호분 등), 그리고 고구려 악사가 수나라·당나라의 궁중에서 연행한 수나라의 칠부악(七部樂)과 구부악(九部樂), 당나라의 구부악(九部樂)과 십부악(十部樂)³¹ 중의 고려기(高麗伎)에서 고구려 연례음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고분벽화에 보이는 각종 악무의 연행양상에 대해서도 연구성과가 나와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 국가전례에 연행된 악무라는 시각을 가지고 논의된 것은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보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분석이 요구되는 내용이다.

고구려의 음악이 중국에서 연행되었던 양상은 『신당서(新唐書)』 「예악지(禮樂志)」에 기록이 상세하다. 『신당서』에는 당의 구부악(九部樂) 가운데 포함된 고려기(高麗伎)의 악기와 악무 연행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구려의 악무와 그 악무를 연행할 때 연주하는 악기에 대한 기록이다.

“고려기에는 탄쟁, 추쟁, 봉수공후, 와공후, 수공후, 비파 … 오현, 의취적, 생, 호로쟁, 소, 소필률, 도피필률, 요고, 제고, 담고, 귀두고, 첼판, 패, 대필률이 있다. 호선무(胡旋舞)가 있는데 춤추는 사람이 둥그런 공위에 서서 바람처럼 돈다.”³²

³⁰ 고구려의 악기는 이진원의 연구에서 정리되었다. 이진원,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음악과 악기.” 『벽화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文化』, 고구려연구회, 2004.

³¹ 수나라의 七部樂(開皇 초, 581 후)에는 淸商伎 國伎, 龜茲伎, 安國伎, 天竺伎, 高麗伎, 文康伎가 있고 九部樂(大業 중, 605-618)에는 청상, 서량, 구자, 소록, 강국, 안국, 천축, 고려, 禮畢이 당나라의 九部樂(武德 초 618후)에는 연락, 청상, 서량, 구자, 소록, 강국, 안국, 부남, 고려가, 十部樂(정관 16년, 642)에는 연악, 청상, 서량, 고창, 구자, 소록, 강국, 안국, 부남, 고려악이 포함되어 있다. 樣蔭瀏, 이창숙 역, 『中國古代音樂史』, 솔, 1992, 344쪽.

³² 『新唐書』 권 21 「禮樂志」 第11, “高麗伎, 有彈箏·擗箏·鳳首箏·臥箏·豎箏·琵琶, 以蛇皮爲, 槽厚十餘有鱗甲楸木爲面, 象牙爲捍撥畫國王形, 又有五絃·義犄笛·笙·葫蘆

고구려 악무를 연행하는 악인(樂人)과 무인(舞人)의 복식과 악기는 『통전(通典)』의 기록을 인용한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악공인(樂工人)은 자주색 비단모자[紫羅帽]에 새깃으로 장식하고, 누른색 큰 소매옷[黃大袖]에 자주색 비단띠[紫羅帶]를 두르고 통 넓은 바지[大口袴]를 입었으며, 붉은 가죽 목신발[赤皮]을 신고 오색의 검은 노끈[緇繩]을 매었다. 춤추는 자 네 사람은 뒤에 상투를 틀고 진홍색[絳]을 이마에 바르고 금귀고리[金]로 장식하며, 그 중 두 사람은 누른색 치마·저고리[黃裙]에 적황색 바지[赤黃袴]요, 두 사람은 적황색의 치마·저고리와 바지를 입는데, 소매를 극히 길게 하고 검은 가죽 목신발[烏皮]을 신고 쌍쌍이 나란히 서서 춤을 추었다. 음악 연주에는 탄쟁 하나, 추쟁 하나, 와공후 하나, 수공후 하나, 비파 하나, 오현 하나, 의취적 하나, 생 하나, 횡적 하나, 소 하나, 소필률 하나, 대필률 하나, 도피필률 하나, 요고 하나, 제고 하나, 담고 하나, 패 하나를 썼다. 당나라 무태후(武太后) 때는 오히려 25곡이 있었으나, 지금은 오직 한 곡을 익힐 수 있고, 의복도 차츰 남아 없어져서 그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책부원귀(冊府元龜)』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음악에 오현, 금, 쟁, 필률, 횡취, 소, 고 등의 악기가 있으며, 갈대를 붙여 곡조를 맞추었다.”³³

인용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고구려 음악 가운데 어떤 종류의 악무(樂舞)인지 확실하게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통전』을 인용한 『삼국사기』의 기록에서는 고구려 악무 가운데 긴 소매 옷을 입고 쌍을 이루어 나란히 서서 추는 군무(群舞) 형태의 춤을 출 때 6개의 현악기, 7개의 관악기, 4개의 타악기 포함 17개, 17종의 악기가 단쟁이 편성으로 반주에 참여하는 대규모의 악무가 연행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조선시대 사신연(使臣宴)에서 연행되는 춤의 반주음악으로 많이 쓰

笙·簫·小箏·桃皮箏·腰鼓·齊鼓·擔鼓·龜頭鼓·鐵版·貝·大箏·胡旋舞，舞者，立毬上，旋轉如風。”

³³ 『三國史記』 권 32 『雜志·樂』 “高句麗樂 『通典』云， “樂工人紫羅帽，飾以烏羽，黃大袖，紫羅帶，大口袴，赤皮，五色緇繩，舞者四人，椎於後，以絳抹額，飾以金，二人黃裙·赤黃袴，二人赤黃裙·袴，極長其袖，烏皮，雙雙併立而舞。樂用彈箏一·撈箏一·臥篳篥一·豎篳篥一·琵琶一·五絃一·義箏笛一·笙一·橫笛一·簫一·小箏一·大箏一·桃皮箏一·腰鼓一·齊鼓一·擔鼓一·貝一。大唐武太后時，尚二十五曲，今唯能習一曲，衣服亦衰敗，失其本風。” 『冊府元龜』云， “樂有五絃·琴·箏·箏·箏·橫吹·簫·鼓之屬，吹簫以和曲。”

있던 여민락이 현재 11종의 악기로 연주하고(조선시대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조선후기 무용반주 편성으로 애호되는 삼현육각편성이 5~6종의 악기인 것과 비교한다면 고구려의 무용반주음악에서는 매우 다양한 악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 고구려시대의 기록에는 나오지 않지만 당시 연행된 악무 가운데 조선조까지 그 맥이 이어지는 동동(動動)이 고구려의 악무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의 기사 가운데 보인다. 성종 12년 8월 조선을 찾아온 중국 사신을 위해 인정전(仁政殿)에서 베푼 사신연(使臣宴)에서 동동무(動動舞)를 연행한 바 있는데, 그것이 고구려시대로부터 유래된 것임을 설명하는 장면이다.

상사(上使)가 연하여 쌍배(雙杯)를 올리니, 임금도 쌍배를 되돌려 주었고, 부사(副使)도 또한 상사와 같은 예(禮)를 행하고서 머리를 조아리고 각기 자리에 앉았다. 월산 대군(月山大君) 이정(李婷)이 술을 돌릴 때에 동기(童妓)가 일어나서 춤을 추니, 상사(上使)가 “이것이 무슨 춤입니까?”하니, 임금이 “이 춤은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름을 동동무(動動舞)라 하오.”라고 하였다.³⁴

『조선왕조실록』에 보이는 동동무의 고구려 유래설에 대한 기록을 인용해 보았다. 동동은 『高麗史』 『樂志』에도 소개되어 있는 향악정재이므로 그 유래가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까지로 소급해 올라가는 데 큰 무리는 없지만, 고구려의 악무를 설명하는 알려진 기록 가운데 동동의 존재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의 인용문은 나름의 가치를 지닌다. 또 고구려시대의 연례(宴禮)에서 연행되었던 악무의 구체적 명칭을 잘 알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드러난 악곡의 이름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상으로 고구려시대 국가전례의 하나로 거행된 수렴의례와 연례에서 연행된, 혹은 연행되었을 악무와 행렬도의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밖에도 팔청리 고분벽화를 비롯한 여러 벽화에서 보이는 산악이나 백희와 같은 잡희(雜戲)³⁵는 궁

³⁴ 『成宗實錄』 132권, 成宗 12年 8月 3日(乙巳) “上使連進雙杯, 上回賜雙杯. 副使亦如上使禮, 叩頭各就座. 月山大君婷行酒時, 童妓起舞, 上使曰: “是何舞耶?” 上曰: “此舞, 自高句麗時, 已有之, 名曰動動舞.”

³⁵ 고구려의 놀이문화에 관하여는 전경옥,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놀이문화(演戲文化),” 『벽화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文化』, 고구려연구회, 2004 참조.

정의 각종 연회나 나례(儼禮), 외국 사신 영접 행사 등 각종 행사에서도 공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국가전례의 일환으로 펼쳐진 연회라는 점도 수긍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행사에서 어떠한 의미로 연행되었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고구려시대에 국가적인 규모로 연행된 국가전례(國家典禮)에 대해서는 주로 국가제사(國家祭祀)에 그 연구가 집중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동맹(東盟)과 같은 국중대회로서의 성격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이는 고구려시대에 행해진 국가전례의 기록이 워낙 소략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위 이상의 논의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작했지만, 역시 자료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고구려시대의 국가전례에 속하는 제례와 수렵의례, 연례(宴禮)로 나누어 그 시행양상을 정리하고 또 그러한 의례에서 사용되었을 음악의 양상에 대해서도 아울러 몇 가지 추론을 해 보는 것으로 논의를 그치게 되었다.

고구려시대에 시행된 국가제례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논의 이상을 진전시키기 어려웠으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동맹제(東盟祭)를 비롯하여 수신제(隧神祭), 시조묘(始祖廟)를 포함한 종묘제(宗廟祭), 사직제(社稷祭), 영성제(靈星祭), 교제(郊祭)와 산천제(山川祭), 신묘(神廟), 일신(日神), 월신(月神) 등의 제사가 고구려시대에 연행된 국가제례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된 음악내용에 대해서는 문헌의 부족으로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또 현재 남아 있는 여러 고분벽화의 기록내용 가운데 안악 3호분의 행렬도와 악무연행내용 가운데 보이는 의장을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고구려왕의 거가출궁(車駕出宮) 의장으로 추정해 보았는데, 본고의 추론대로 그것이 왕의 행렬도라면 앞으로 고구려시대 왕의 거동시 연행되는 의장의 규모와 성격 내용에 대한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것과 함께 덕흥리고분이나 약수리고분 등의 행렬도에서 보이는 행렬의 규모 등을 비교해 본다면 고구려시대에 각 신분별 의장내용에 대한 연구도 진척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미처 그 연관성을 찾지 못한 고구려 고분벽화들의 음악연주 장면 가운데 많은 것이 고구려 국가전례가 시행될 때 연행된 음악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시각을 열어 놓는다는 점에 본고의 의미부여를 해 본다. 본고는 ‘국가전례와 음악’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첫 시도이므로 논리적인 비약, 혹은 무리한 해석을 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시각을 갖고 기존의 자료들을 들여다본다면 보다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三國史記』
- 『三國史節要』
- 『高麗史』
- 『東國李相國集』
- 『朝鮮王朝實錄』
- 『後漢書』
- 『三國志』
- 『晉書』
- 『宋書』
- 『南齊書』
- 『梁書』
- 『陳書』
- 『魏書』
- 『北齊書』
- 『周書』
- 『南史』
- 『北史』
- 『舊唐書』
- 『唐書』
- 『隋書』
- 『風俗通』
- 『日本後記』

『禮記』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고구려문화』,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吉林省文物志編委會, 『集安縣文物志』 52, 1984.

宋芳松, 『韓國古代音樂史研究』, 서울: 일지사, 1985.

강경구, “隧神考,” 『고구려의 건국과 시조숭배』, 학연문화사, 2001.

琴章泰, “제천의례의 역사적 고찰,”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대출판부, 1994.

김성혜, “韓國古代音樂研究의 檢討(1): 상고사회와 고구려음악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音樂史學報』(경산: 한국음악사학회, 1993) 11집.

崔光植,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徐永大, “高句麗의 國家祭祀 — 東盟을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20, 한국사연구회, 2003.

李基白, “儒教受容의 初期形態,” 『韓國民族史想史大系(2)』 古代篇, 서울: 亞細亞學術研究會, 1979.

이진원,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 음악과 악기,” 『壁畫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文化』, 서울: 고구려연구회, 2004.

李惠求, “安岳第三號墳 壁畫의 奏樂圖,” 『韓國音樂序說』, 서울: 서울대출판부, 1967.

李惠求, “高句麗樂과 西域樂,” 『韓國音樂研究』, 서울: 민속원, 1996.

변미혜, “안악 제3호분의 주악도가 갖는 문화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

전경옥, “벽화를 통해서 본 고구려의 놀이문화(演戲文化),” 『벽화에 나타난 高句麗의 社會와 文化』, 서울: 고구려연구회, 2004.

전주농,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악기에 대한 연구(1),” 『문화유산』(평양: 사회과학연구소, 1957) 제1호.

전주농, “고구려 벽화에 나타난 악기에 대한 연구(2),” 『문화유산』(평양: 사회과학연구소, 1957) 제2호.

주영헌, “주요 고구려 벽화무덤의 주인공에 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日本: 朝鮮畫報社, 1985.

주재걸, “고구려에서 군악대활동에 관한 연구,” 『력사과학』(평양, 1982) 제2호.

주재걸, “고구려 사람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연구: 음악·무용을 중심으로,” 『고고문속본문집』(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8권.

National Rituals and Music in *Goguryo* Period

Song, Ji-won(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rituals are all sorts of ceremonies performed in the court (royal palace) on a national scale. The national rituals performed in *Goguryo* Period were the sacrificial rites, such as *Dongmengje* 東盟祭, the rite of worshipping Heaven in October, *Jongmyoje* 宗廟祭, and *sajikje* 社稷祭. In addition to these, there were various national rituals with different traits and functions. This paper will look into the characteristics of overall national rituals, by classifying national sacrificial rites, hunting rites, and banquet ceremony. Furthermore, this paper will clarify the aspects of music performance accompanied in such ritual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cene of music performance in the wall paintings and particular national rituals.

This paper presumes the parade painting in An'ak, No. 3 安岳三號墳 from the records of ancient wall paintings as the portrayal of the procession of *Goguryo* king's royal carriage coming from the palace. If this proves to be the procession of *Goguryo* King, the discussion on the scal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ceremonies performed in *Goguryo* King's coming will be more advanced.